

“연세의 연세다움을 위하여”  
**연세노동조합협의회**

수신자 :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참 조 :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본부장

제 목 : 총장선출과 관련된 이사회의 안에 대한 연세노동조합협의회 의견

---

1. 재단법인 연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연세대학교는 총장선출과 관련된 이사회의 안과 관련하여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총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참여가 과도하게 많아 내부구성원인 교원,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총장의 추천으로 직원과 학생이 임명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4인을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총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자율성과 민주성이 훼손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후보자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의 권한에 영향을 받는 인사가 비단 교수만이 아님을 알면서도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수평가단의 평가로 인준을 받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뿌리깊은 선민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서울대학교 총장선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방의 권한이 강하게 표명되는 것은 부실논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사회나 교수평의원회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총장선출구조의 결과를 낳을 뿐이며 구성원이 적절한 비율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을 통하여 총장후보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후보의 인품과 업무추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연세노동조합협의회는 총장선출제도개혁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을 일부 수용하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전달할 것을 밝히며 민주적이고 참여가 보장된 총장선출과정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연세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기안자 집행위원장 진 기 숙

의장 권 미 경

협조자

시행 연노협 2019 - 5 호 (2019. 5. 20) 접수

( 2019. 5. )

우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http://cafe.daum.net/yutuc>

전화 (02) 2228-9403 전송 (02) 393-6877

/ [ginggy@naver.com](mailto:ginggy@naver.com) / 공개